

# 중앙고속도로제천-원주구간통행료징수유보건의안

의안번호	581
------	-----

발의년월일 : 1999. 12. 20

발 의 자 : 최상귀 의원의 3인

## 1. 제안이유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구간이 4차선으로 확포장공사중에 있어 고속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도 '95. 8월 2차선으로 부분 개통된 이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인근 강원도 신림지역과 형평성이 결여되는등 문제점이 있어 2000년 5월 4차선 완공시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건의코자함.

## 2. 주요골자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문제점 지적(3가지)
  - 공사중인 고속도로에 통행료 징수의 적법성 여부
  - 강원도 지역과의 형평성 결여
  - 2회 요금 납부로 이용객 불편 및 지체
- 건의사항 (1가지)
  - 4차선 완공시(2000년 5월)까지 통행료 징수 유보

1999. 12. 24(금)  
제55회정기회 제8차본회의

중앙고속도로제천-원주구간통행료징수유보  
건의문

제 천 시 의 회

# 건의문

수신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김영준국회의원  
건설교통부장관, 충청북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제목 :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구간 통행료 징수유보 건의

목전으로 다가온 새천년에 세계 초일류 국가로의 응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귀하와 귀기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는 기간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지역을 통과하는 유일한 고속도로인 춘천~대구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가 1989년 3월 착공되어 전구간 개통을 못하고 로선중 주요도시간 일부 구간만을 2차로로 부분 개통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천~원주구간도 제천시민 모두에게 최초의 고속도로 개통이라는 벅찬 희망과 감동을 주며, 난공사 구간임에도 95년 8월 2차선으로 부분 개통하였으나, 산악지대의 높은 교량과 이어지는 터널을 통과하며, 부분적으로 구름위를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때도 있으나 잦은 굽이와 편도 1차선의 좁은 로폭과 심한 경사면등 국도와 다름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고속도로 개통의 편익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4차선 확포장공사가 개시되었으며, 공사관계 차량과 장비의 잦은 출입으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공사구간의 개통이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오고 있어 이는 불합리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인근 강원도 신림지역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건의 드리오니 기필코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황 및 문제점

### 가. 공사중인 고속도로에 통행료 징수의 적법성 여부

- 유료도로법 제3조에 의하면 유료도로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당해 도로의 통행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통행자 또는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로 정하고 있으나, 제천~원주구간은 편도 1차선으로만 개통된 후 4차선 확포장 공사중에 있어 이용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안전운행의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나 갓길 설치되지 않아 사고율이 높을 뿐 아니라 안전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4차선 공사중에 있으며, 고속도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못함

### 나. 강원도 지역이용자와의 형평성 결여

제천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신림I·C나 남원주 I·C를 이용하는 강원권 주민은 그 구간에 대하여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다. 2회 요금납부로 이용객 불편 및 지체

제천~서울간 운행시 제천톨게이트에서 1,100원을 선납하고, 남원주 톨게이트에서 재차 티켓팅하여 서울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납부하는등 두차례 요금계산으로 이용객 불편과 교통지체의 요인이 되고 있음.

**2. 건 의 사 항**

- 중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완공되어 이용객의 안전성과 원활성을 확보하고 고속도로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2000년 5월까지 제천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를 유보하여 15만 제천시민과 단양·영월·영주등 강원 남부·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각분야에 구조조정과 개혁이 진행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금번 제천시의회에서 15만 시민의 뜻에 따라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오니 중앙고속도로 제천~원주간 통행료 징수가 반드시 유보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9. 12. 24

**제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